

“9·19 군사합의 실패” vs “尹정부 안보 공백”...강릉 낙탄 공방

여야 국회 국방위 국감 난타전
국힘 “文정부 사격장 폐쇄가 원인”
민주 “늑장·축소 대응이 더 문제”
서해 피격 회의록 공개 신경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자료 공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낙탄 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은 9·19 군사합의 실패이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이후 대응에서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과거에 미사일이 위협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 확대 해석해서 역시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지만 운용상 마차전 활용이 가능한데 왜 옮겨서 발발 열게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중 의원은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도발 위험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셀프 타격이라는 조동이 나온다. 남한을 선제 타격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묻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인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 위원은 낙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합참과 국방부에 제때 보고됐는지를 따졌다.

이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의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야는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우려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작전”이라며 “연합사 해체가 포함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지금 중지,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미일 정상은 4일 긴급 통화를 했고, 한미일 훈련이 다시 논의되는데 유독 한미 대통령 통화 소식이 없다”며 “한반도 정세 둘러싼 긴박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이 패상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이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과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의장은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닌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은폐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안개’ 걷힌 국힘, 관심은 차기 전대로...내년 초 유력

지도부 ‘정기국회 후 전대’ 무계
몹쓸기 들어간 당권 주자들 경쟁

국민의힘이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체제를 거쳐 전당대회를 여는 정치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어서, 일찌감치 몹쓸기에 들어간 일부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당권 경쟁이 갈수록 격렬해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정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 가처분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이 전대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오늘 법원 판정이 내려졌기에 앞으로 전대까지 제가 당을 이끌게 됐는데, 비대위들과 당 소속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경쟁해서 당내 일정을 하나하나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대 시기를 두고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년 초 여는 방안이 당내에서 유력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전대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주요 당권 주자군으로 꼽히는

가운데, 원외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와 지지층이 겹쳐 ‘연대설’이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비윤(非尹) 대표 주자’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또, 친윤 그룹에서는 ‘원조 윤핵관’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이 잠재적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는 5선의 조경태, 4선의 윤상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대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전제 아래 권영서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자출설도 거론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29%...두달만에 20%대

NBS 조사...부정평가 65%

64% “비속어 논란 외교 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로 약 두 달 만에 다시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엘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역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65%였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추진 등 이슈가 있었던 8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28%) 이후 긍정 평가가 다시

20%대로 하락한 것이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 ‘외교참사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참사’라는 응답이 64%,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의 왜곡’이라는 응답은 28%였다.

비속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70%로 ‘동의하지 않는다’(27%)에 비해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무소속’ 순천·광양·목포·영광 특별교부금 확보

행안부, 해당지역 수습역씩 편성
조수진 의원 대통령실 등에 요청

단체장이 무소속인 순천·광양·목포시와 영광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수습역 원석을 확보했다.

6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순천시 강변도로 도시 숲 조성 등을 위해 순천시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정했다. 또 광양시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광양시에 10억원을 산정했다. 영광군 산

하치소하천 정비와 흥곡소하천 정비, 농어촌도로 백수 206호선 확포장 공사, 골을재 근계화로 개설 등을 위해 영광군에 25억원을 확정했다. 목포 북항 회타운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 등 목포시에도 특별교부금 18억원을 산정했다.

무소속 단체장 지역 외에도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안군도 2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일부 전남 시군지자체들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교부금은 행안부 장관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직권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자체

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전남지역 무소속 시장 군수들이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데는 전북 익산 출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역시 익산 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국민의힘 불모지인 호남 행거기를 자임하면서 무소속 단체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하고, 이들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편성을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요청했다.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중 무소속은 7명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수진 의원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월진도

2022 진도문화예술축제

10.1.(토) ~ 10.31.(일)
진도 향토문화회관 일원

어디서든 들리는 노래소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우리 문화마당,
어깨춤 덩실덩실 흥겨움에 젖는다면
모두 다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지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 진도에서 느껴보세요!!

주요행사

- 진도시 미술작품 초대기획전 : 10. 08.(토) ~ 10. 30 / 향토문화회관 기획전시실
- 제15회 진도 고운 김득수 전국고수대회 : 10. 8.(토) ~ 9.(일) / 향토문화회관 공연장
-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 : 10. 16.(일) ~ 13:00 ~ / 향토문화회관 공연장
- 학생 백일장 및 미술실기 대회 : 10. 19.(수) 10:00 ~ / 향토문화회관 야외
- 제24회 대한민국 남도민요 경창대회 : 10. 22.(토) ~ 23.(일) / 향토문화회관 공연장
- 제17회 대한민국 소치 미술대전 : 10. 22.(토) 14:00 ~ 11. 8.(화) / 진도 소천미술관
- 2022년 진도 문화예술 사진축전 : 10. 22.(토) 15:00 ~ / 가계해수욕장 야외무대
- 제2회 대한민국 소년 서예 회화대회 : 10. 23.(일) 10:00 ~ / 실내체육관
- 제2회 진도북놀이 페스티벌 : 10. 26.(수) ~ / 향토문화회관 야외
- 강강술래 한마당 잔치 : 10. 30.(일) 10:00 ~ / 무형문화재 전수관
- 진도 군민 노래자랑 및 축하쇼 : 10. 30.(일) 18:00 / 10. 31.(월) 18:00 ~ 향토문화회관 야외무대

주최 | Jindo 진도군
주관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